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②

## 총림, 종교사에 전례없는 제도

‘총림(叢林)’이란 글자 그대로 ‘우거진 숲’ ‘울창한 숲’이라는 뜻으로 ‘선원(禪苑, 禪院)’·‘선림(禪林)’이라고도 한다. 숲처럼 많은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규모가 큰 선원·선종 사찰을 가리킨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 곧 선원·강원·율원, 이렇게 세 종류의 수행 도량을 갖추어야만 ‘총림’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총림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의 총림은 1967년에 설립된 해인총림(해인사)이고, 이어 조계총림(송광사, 1969), 고불총림(백양사), 영축총림(통도사), 덕숭총림(수석사)이 생겨서 현재는 모두 다섯 개의 총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총림이 없었을까? 고려·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총림이 있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총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고 상계사 같은 곳에는 동방장·서방장이라는 당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총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정혜결사를 펼쳤던 송광사는 16국사를 배출했는데, 당시 ‘총림’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규모로 보

약 5시간 걸리고, 산 입구에서 백장사까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대단한 오지(奧地)로서, ‘과연 여기서 총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는 작은 절이라고 한다.

총림제도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불교·도교 등 중국 종교사를 통틀어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총림제도는 그 후 도교의 일파인 전진교에서도 도입했다.

총림의 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청(普請, 普請)’이다. 우리말로 ‘율력(율력)’이라고 하는데, 대승들은 평소 전심(專心)으로 좌선하는 것 외에,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작무(노동)를 했다. 그런데 마당에 돌아오는 풀이나 뽑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 농작물 재배가 주된 일로서, 주지(방장)가 솔선수범했으며,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했다. 제의 대상자는 각 요사(寮舍, 당우를 지키는 요주(寮主)와 직당(直堂, 당직), 열반당에서 요양하고 있는 스님뿐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유나(維那, 기강 담당)스님은 주장자로 쳐서 내쫓았다.

수입과 지출 등 총림의 모든 재정은 반드시 공개했고, 의식주 등은 소육지족의 생활

당우 이름이었다.

주지(방장)는 덕망이 있고 정견(正見)을 갖춘 선승 가운데서 대중회의를 거쳐 선출했는데, 선원의 운영은 물론이고 상당범어(한 달에 6번)·조참(早參)·만참(晩參)·입실·독참 등 모든 수행자 교육을 담당했다. 따라서 주지는 선에 대한 안목과 정견, 정안을 갖춘 선승이아라만 감당할 수 있었다. 또 교학적으로도 박학다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백 명 가운데는 날고 기는 선승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책임자가 없을 때는 타사(他寺)에서 모셔오기도 했다.

주지 밑에는 6지사(六知事, 초기에는 4지사)와 6두수(六頭首)를 두었는데, 지사(知事)는 행정, 관리 쪽이고, 두수(頭首)는 수행 쪽 소임이다. 6지사는 도사(都寺)·감사(監事)·부사(副寺)·유나(維那)·전좌(典座)·직세(直歲)이고, 6두수는 수좌(首座)·서기(書記, 書狀)·장주(藏主)·지객(知客)·육주(浴主, 浴頭)·고두(庫頭)이다(자세한 역할은 ‘총림의 소임’에서 씀).

지사와 두수 밑에 다시 종두(鐘頭)·채두(菜頭) 등 20여 개의 작은 소임이 있고, 그 밑에 행자(行者, 童行)가 있다. 소임(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좌선 시간에 열외 되는 것은 아니다(후대에는 소임을 이유로 좌선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음). 소임을 이유로 없는 스님을 통칭 ‘청중(淸衆)’이라고 불렀는데, 청중은 보다 전문적인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앞



통도사 스님들이 율력하는 모습. 총림의 제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율력이다. 이유없이 불참하면 주장자로 쳐서 내쫓았다.

도 깨달음을 이룬 뒤 바라나시 근처 어느 숲 속에 있는 거처에서 ‘우기를 보냈다’는 대목이 있다.

붓다 당시 인도불교에는 하안거 제도만 있고 동안거 제도는 없었다. 동안거는 추운 지대인 중국·한국·일본에만 있다. 안거는 하안거가 중심이며, 승랍도 하안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거를 다른 말로 ‘결제(結制)’라고 하는데, ‘규제를 묶는다’ ‘통제한다’는 뜻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스님들은 절대 밖으로 다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선원이냐 강원은 물론이고, 작은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결제 기간 중에는 다니는 스님(객승)이 거의 없었다. 다만 주지·총무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스님, 치료차 병원 가는 것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였다. 과거 필자가 머물렀던 사찰에 20여 명이 사는 작은 본사였지만, 결제 기간에 다니는 스님은 거의 없었다. 간혹 다니는 스님을 보면 속칭 ‘뺨초’라고 하여 스님 취급도 하지 않았다.

‘선원청규’에 따르면 천년 전 당송시대에도 결제, 안거는 엄격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었는데 반드시 주지 등 관련 소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 공적인 일이나 치료 등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하는 외출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외출 기간은 15일 내로 제한했고 15일이 지나면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했다.

총림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이것을 ‘입중오법(入衆五法, 총림 생활의 다섯 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1) 스스로를 낮출 것(下意) (2)자비심으로 다른 이를 대할 것(慈心) (3)어른에 대하여 경의를 포함 것(恭敬) (4)차려와 순서를 지킬 것(知次第) (5)수행하는 일 고이고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말 것(不說餘事) 등이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선원총림에서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은 일체 금물이다. 불필요한 말은 정신을 산만하게 할뿐더러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언쟁, 다툼은 화합을 해친다고 하여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 징계했는데, 심할 경우 두 사람을 함께 추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상·좌선·방선·공양·율력·취침 등 모든 신호는 종(鐘)과 북(鼓)·운판(雲板)·목어(木魚) 등을 이용했고, 공지사항은 알림패를 이용했다.

총림·선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달음 선승을 길러 내는 곳’이다. 참선 수행자로 하여금 견성성불케 하는 ‘교육의 장’이고, 미완의 존재를 전인적인 존재로, 증생을 부처로 만드는 ‘선림(禪院)’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불작조고(成佛作祖, 부처와 조사를 만드는 학교)’로서 해당 총림의 주지(방장)는 수도원장, 총장이고 청규는 학칙이다. 노련한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서 쟁기를 만드는 것처럼, 대장장이의 망치를 살아한다면 그는 번뇌 망상에서 졸업 할 날이 없게 된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공개 살림... 소육지족의 생활

### 방장 적임자 없으면 타사에서 초빙

서는 충분히 총림이 되고도 남는다.

중국불교에서 통상적으로 ‘총림’이라고 하면 선종사찰을 가리킨다. 중국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총림제도를 만든 것은 당(唐) 중기의 선승 백장화해(百丈懷海, 720-814)이다. 그는 마조도일의 제자로서 기존의 청규를 집대성하고 보완, 성문화하여 ‘백장청규’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 청규를 바탕으로 백장산 수성선사(壽聖禪寺, 백장사)에 최초의 선종총림인 ‘백장총림(百丈叢林)’을 창설했다.

중국사찰방장의 대가인 정운스님의 말에 따르면 남창에서 백장산 입구까지 택시로

있었다. 또 총림의 모든 재산은 공유물로서 막대기 하나라도 사유화할 수가 없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자들의 보시와 공양은 균등하게 적용했다. 인도불교의 사방승물(四方僧物, 모든 물건은 승가 공동의 것)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개인의 소유물은 가사와 발우·좌구(坐具)·경전 및 권 등 18종에 불과했다.

총림의 최고 통솔자는 주지(住持) 즉 방장이다. ‘방장(方丈)’이란 유마기사의 방이 ‘사방이 1장(10척, 사방 3.3m)’인 데서 비롯되었지만, 당송시대 선원총림에서 ‘방장(方丈)’은 직함이 아니라 주지가 거거하는

는 자리 등 순서는 모두 법랍에 따랐고, 모든 대중은 원칙적으로 평등했다. 일체 증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에는 계급과 차별이 없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원총림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반야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유럽의 가톨릭 수도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도원은 각 개인마다 방이 하나씩 주어져서 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개인

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만(수도원에 따라서는 침대를 사용하고 침대 사이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선원총림은 개인적인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는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선원의 생활은 주지·감원 등 중책을 맡은 스님 외의 모든 수행자들은 선당(선방)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가로 1미터, 길이 2미터로서 다다미 한 장, 합판 한 장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통오달로서 사방이 푹 들어 있다. 지대방 성격의 ‘중요(衆寮)’가 있기는 해도 개인적인 공간은 없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총림과 선원, 강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구참남자(久參衲子, 고참에게는 독방, 그 외는 2인 1실을 주는 선원도 있다고는 한다. 중국 역시 개인적인 공간(방)을 주는 곳이 많다고 한다. 시대적으로 부득이한 것이기는 해도 개인방을 소유한다는 것은 총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총림의 운영과 규칙, 규율 등은 청규에

따른다. 청규는 선원을 움직이는 법전(法典)이다. 수행기간은 하안거 90일과 동안거 90일로써 1년에 총 180일이다.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에 시작하여 7월 14일까지이고, 동안거는 10월 15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월 14일까지이다.

안거(安居)는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사(vassa)’, 팔리어로는 ‘바사사(vassa)’라고 하는데 ‘장마철’ ‘우기(雨期)’를 뜻한다. 인도는 6월 초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몬순기(Monsoon, 季節風)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계절풍으로 이때는 많은 비를 동반한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의 3개월 동안 지겨울 정도로 계속된다. 평소 저지대(습지)에서 서식하던 파충류, 개미, 지렁이 등 벌레들이 고지대로 이동하는데 이 때 수행자들이 다니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게 된다. 살생을 방지하고 우기 동안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 하안거 제도이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 청 순지황제의 출가서

천하의 총림 진수성찬갈배

청나라 때 순지황제는 선종총림의 품격과 절도, 그리고 청한(淸閑)한 생활을 보고 나서 출가시(詩)를 지었다고 한다.

天下叢林飯如山(천하총림반여산)  
鉢盂到處任君餐(반우도처임군찬)  
朕本西方一衲子(집본서방일납자)  
如何落在帝王家(여하낙제제왕가)

祇園當初一念差(지인당초일념차)  
黃袍換却紫袈裟(황포환각자가사)

천하의 총림 마치 진수성찬 갈배.  
발우 곳곳에 있나니 食不食은 그대 마음.  
나는 본시 서방의 한 납자였거늘,  
어찌 지금 제왕가에 있는 것일까?  
당초 한 생각 잘못 되었기 때문이니  
황제의 옷 붉은 가사와 바꾸고 싶네.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

(紫禁城)에서 꽃 같은 수천 송이의 궁녀들, 그리고 만조백관을 거느리면서 호의 호식하는 황제의 몸이었지만, 총림의 풍광은 꽃송이 못지 않은 선망(羨望)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인생, 낮에는 개미처럼 돈을 벌어들이고, 해지면 집으로 들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신(分身)같은 자식을 쳐다보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삶의 방식 이긴 해도 만면에 희소를 띄울 만치 흠족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www.sungjongs.co.kr
이 사람아!

##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단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은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뿌려민공이여!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대표: 범산 원광식  
(종묘유형문화재·대인민공 명장)

● 전신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서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